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 비교분석

A Comparison of Determinant Factors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Korean and Chinese Students

이지석 • Ji Seok Lee, 續大鵬 • Da Peng Xu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력지향성, 사회문화적 요인, 자기권능감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첫째, 경력지향성에서 기술지향성, 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수준은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사업지향성에서는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 중 기업이미지 수준은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 수준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한국 대학생이 중국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경력지향성 변수 중에서 사업지향성은 한국과 중국 대학생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적 정(+)의 영향이 있었고, 안정지향성에서는 한국 대학생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적으로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권능감과 기업이미지는 한국 대학생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트워크 환경(가설 2-2)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창업의지에는 가설이 기각된 반면에,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 경력지향성, 사회문화적 요인, 자기권능감, 창업의지

이지석 | 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jiseok@semyung.ac.kr)
續大鵬 | 세명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factors like career orientation, social & cultural perception and self-efficacy that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and also comparison of determinant factors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Korean and Chinese students. First, in terms of technical competence orientation, security orientation, autonomy orientation, Korean students showed higher than Chinese students, while Korean students showed lower entrepreneurial creativity orientation. In terms of corporate imag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students showed lower than Chinese students. Second, entrepreneurial creativity orientation out of career orientation among Korean and Chinese Student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hile security orientation had marginally nega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corporate image had the positive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ogether. The Chinese students, however, had the positive effects in network environment for analysis in this study only.

Keywords: Career Orientation, Social & Cultural Perception,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

Ji Seok Le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Semyung University

Da Peng Xu | Department of Management, Graduate School, Semyung University

I. 서론

“기업가(entrepreneur)는 경제적 자원을 생산성과 수익성이 보다 낮은 곳에서부터 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다.”라고 1800년경 프랑스의 경제학자 J. B. 세이(J. B. Say, 1767-1832)는 말했다. 현대 경제학자 중에서 슈페터는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피터 드러커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2011년 3월 10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출범하는 자리에서 기업가정신 연구의 권위자인 칼 슈람 미국 카우프만재단 이사장은 “신생 기업의 기업가정신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기업, 대학 등은 고군분투하는 신생 기업의 부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5개 창업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올해 총 30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기업가정신이 실질적인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잠재적 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 창업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창업의지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다(Krueger 1993).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력선택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개인차 변수인 경력지향성(career orientation)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서 기업이미지와 네트워크 환경이 잠재적 창업가들의 창업의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함께 분석하기로 한다. 개인의 성격특성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중 하나인 자기권능감(self-efficacy)을 독립변수로 설정했다. 자기권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는 Ajzen(1991)의 계획적 행동이론에 의해 설명되는데,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력 등 세 가지 핵심적 태도가 행동의지를 결정하게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연구 질문을 제시하기로 한다.

- 1) 창업의지 결정요인들은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들 간에 차이가 있는가?
- 2) 경력지향성, 사회문화적 요인, 자기권능감 변수들 중에서 어떤 것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경력지향성

경력지향성(career orientation)이란 경력지향 욕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근거로서 조직 구성원 개인이 추구하는 방향, 경력 상 중시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미래지향 욕구는 매우 강력하여 자신이 인지한 것이 정확한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개인의 미래 경력경로의 결정을 인도하거나 제한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chein 1975).

경력지향성의 형성은 조직 구성원 각 개인의 가치체계, 개별 발휘 능력 등 개인적 인 요인과 인사제도, 노무관리, 조직의 구조, 노사 문화 등 조직 내적요인, 그리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 사회적 갈등구조, 사생활 영역 등 조직 외적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경력지향성(career orientation)과 경력 닻(career anchor)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력 닻은 개인이 인지하는 욕구, 재능, 가치의 조합으로서 경력을 제한하거나 자아개념을 말하며, 경력지향성은 개인의 경력에 관한 의사결정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써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심리, 가치, 동기를 말한다(Schein 1990).

경력지향성의 유형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Goulder의 경력지향성 분류(Gouldner 1958), 둘째는 Schein의 경력 닻에 의한 경력지향성 분류(Schein 1975), 셋째는 Delong의 경력지향성의 분류(Delong 1982), 넷째는 윤방섭의 경력지향성의 분류(윤방섭 2004)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윤방섭이 제시한 관리지향성, 기술지향성, 사업지향성, 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개인의 경력선택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경력지향성 변수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의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지향성을 지닌 사람과 자율지향성을 지닌 사람은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을 것이며, 안정지향성을 지닌 사람은 창업의지가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윤방섭 2004).

가설 1 : 개인의 경력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 관리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 기술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 사업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 안정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 자율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문화적 요인

창업에 대한 높은 사회적 위상(social status) 부여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가적인 경륜추구를 긍정적으로 임하게 하며, 기업가적 야심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과감한 창업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서 기업이미지와 네트워크 환경은 잠재적 창업가인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이미지(corporate image)는 상호간 영향을 주는 관계가 이미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신뢰성, 혁신성, 성공적, 잘 관리되는, 전문성이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묘사되어지는 친밀성과 관련성 요인으로 분류하였다(장택원 2003). 기업이미지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속에 사물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arton and Boddenwyn 1978).

Brown and Dacin(1997)은 기업이미지 요소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전문성인 기업능력과 중요한 사회이슈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기업이미지가 좋으면 사회적으로 신뢰와 지지를 얻어 친기업 정서가 되지만, 반대로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반기업 정서로 나타날 수 있다.

네트워크 환경(network environment)은 일반적으로 창업자 부모 및 역할모델을 통하여 창업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Scott and Twomey 1988)과 창업자로서 성공한 부모의 존재가 사회적 학습 과정을 통해 자녀들의 창업에 대한 자신감, 창업 경력에 대한 기대, 창업가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욕구를 높여줌으로써 자녀들은 창업을 선호하게 된다(Scherer, Adams, Garley, and Wiebe 1989).

창업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하여 창업에 대한 정보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윤방섭 2004). 창업을 할 경우 정서적,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세력의 존재(Gnyawali and Fogel 1994)가 중요한데, 사회적 지원세력은 창업에 있어서 지원과 동기부여, 사례와 역할모델, 전문적 조언과 상담, 기회와 정보 그리고 지원에의 접근을 제공한다(Manning, Bielely, and Norbuen 1989).

전병유(2003)는 창업배경에서 가족의 일원이 창업가인지의 여부 즉 창업가가 있는 가족에서 성장한 사람은 다른 가족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창업가가 되지 쉽다고 주장했다. 창업자들은 창업과정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초창기 창업단계에서 다른 사업자들이나 관련된 사람과 접촉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하며 사회적 지원정도는 창업의 성공 기대를 높여줄 것이다(윤방섭 2004).

가설 2 : 사회문화적 요인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 기업이미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 네트워크 환경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기권능감

자기권능감(self-efficacy)이란 특정 목표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신념이다(Bandura 1977).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얼마나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지각을 나타내는 자기권능감은 개인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임준철과 윤정구 1999). 높은 수준의 자기권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필요한 과업을 익히고 숙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가올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사람의 행동은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통제되며, 한 사람의 행동 중 많은 부분이 외부환경에 의해 결정되지만 외부환경 역시 많은 부분이 사람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상호작용주의적 관점(Schneider 1983)에 따르면 자기권능감은 한 개인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창조하고 재구성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개념이다. 사람들은 환경에 관해 선별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고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활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며, 창업활동도 그런 기회的一部分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권능감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Krueger and Brazeal 1994).

자기권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는 Ajzen(1991)의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는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력 등 세 가지 핵심적 태도가 행동의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중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그 사람이 목표행동을 실행할 수 있을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이는 자기권능감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된다(Krueger and Brazeal 1994). 강한 자기권능감을 갖고 있을수록 행동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며, 결과적으로 강한 행동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이지우 2000).

자기권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는 Shapero(1981)의 주장에서도 유추될 수 있다.

그는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실현가능성을 들고 있다. 창업은 그것의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받으며, 그런 실현가능성의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권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경력(career)과 관련해서는 특정 직무나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기권능감은 경력관련 환경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에 관한 평가를 결정한다. 경력관련 환경의 속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기회를 찾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한 개인의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이지우 2000).

가설 3 : 자기권능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으로 창업 연구에서 개념적·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Krueger 1993; Krueger and Brazeal 1994).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한 행위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첫 단계이다. 그리고 의지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창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써(Krueger and Carsrud 1993), 의지는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창업의지는 개인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이지우 2000; 윤방섭 2004).

창업의지의 중요성은 잠재적 창업가들이 국가나 조직의 경제적 활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가나 지역경제 또는 조직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과 자기쇄신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의지를 갖고 있는 잠재적 창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Shapero 1982). 개인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기회가 주어지면 창업가적 기질을 발휘하여 창업관련 행동을 주도하는 잠재적 창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할 때 지역, 조직 그리고 집단 등이 탄력성을 갖추게 된다(이지우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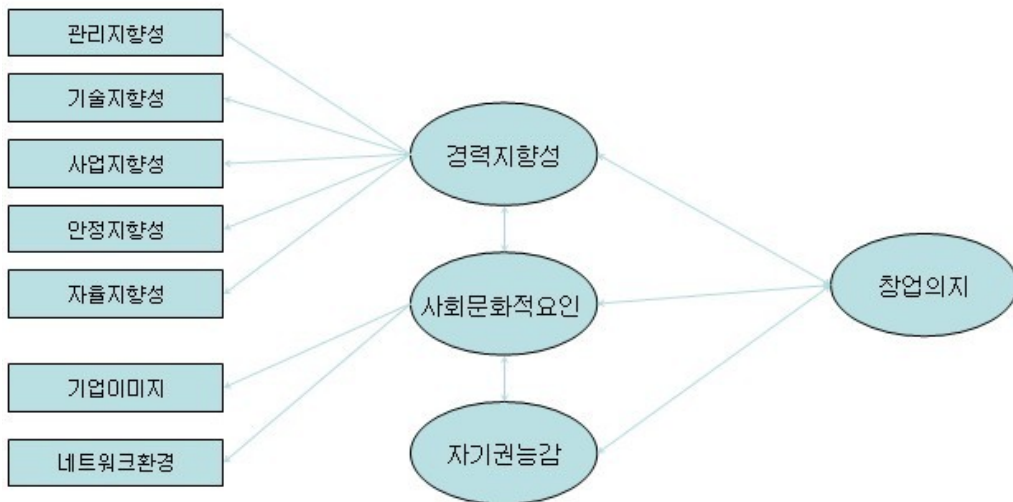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제시한 경력지향성(관리·기술·사업·안정·자율지향성)과 사회문화적 요인(기업이미지, 네트워크환경) 그리고 자기권능감에 대해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간에 비교 분석하고 어떤 변수에서 양국 대학생 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가설 4 :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지우(2000)의 자기권능감과 창업의지 모델과 윤방섭(2004)의 경력지향성, 자기유능성, 환경요인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모형, 유연호(2008)의 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모델, 그리고 이기일(2009)의 경력지향성, 심리적 특성, 사회문화적 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델 등을 기초로 독립변수에 경력지향성, 사회문화적 요인, 자기권능감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창업의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창업의지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그림 1>의 연구모형을 만들었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방법

2.1 자료 수집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대학생은 충북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의 경상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조사하였고, 중국 대학생은 영국 요크대학교, 호주에 있는 캔버라대학교, 한국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실시했으며, 총 600부를 배부하여 585부를 회수하여 무효응답 55부를 제외하고 총 530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본으로 활용된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361명(68.1%)이고 여성이 169명(31.9%)으로 나타났고, 국적은 한국 대학생이 199명(37.5%)이고 중국이 331명(62.5%)으로 중국 대학생들의 표본이 더 많았다. 가족 중에 창업자가 있는지 여부는 한국 대학생이 132명(66.3%)이 창업자 친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국 대학생은 239명(72.2%)으로 조사되어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자 가족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있어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경상계열 학생이 87명(43.7%)의 빈도로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중국 대학생의 경우에도 170명(51.4%)의 구성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일반적 특징중 국가별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고, 성별 및 전공별 차이에 대한 부분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을 것이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항 목		한 국	중 국	전 체
세부내용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성 별	남	134(67.3)	227(68.6)	361(68.1)
	여	65(32.7)	104(31.4)	169(31.9)
국 가	한국	199(100)	0(0)	199(37.5)
	중국	0(0)	331(100)	331(62.5)
가족 중의 창업자	있음	132(66.3)	239(72.2)	371(70)
	없음	67(33.7)	92(27.8)	159(30)
전 공	경상계열	87(43.7)	170(51.4)	257(48.5)
	공학계열	25(12.6)	38(11.5)	63(11.9)
	기타	87(43.7)	123(37.1)	210(39.6)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먼저 독립변수로는 경력지향성, 사회문화적 요인과 자기권능감으로 크게 세 가지 변수로 구분했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

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문항		
경력지향성 (15)	창업의지의 결정요인인 개인적 경력지향성 (관리지향성, 기술지향성, 사업지향성, 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Schein(1987) Feldman(1988) Igbaria et al (1991) Kolvereid(1996) Feldman Bolion (2000) 윤방섭(2004)
	관리지향성 (3)	(1)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 감독, 통합 (2)계층의 사람들 관리, 감독, 통제 (3)전체조직의 책임	
	기술지향성 (3)	(1)내 전문분야 성호 (2)경력을 통해 내 전문 분야 추구 (3)특정한 기술(기능)분야의 경력	
	사업지향성 (3)	(1)내 사업의 아이디어 (2)내 사업을 시작하고 구축 하는 꿈 (3)사업 활동은 내 경력	
	안정지향성 (3)	(1)안정된 공용, 봉급, 퇴직 (2)장기적인 고용안정 보장 조직 (3)장기고용 보장 조직	
	자율지향성 (3)	(1)조직의 규정이 아닌 내 방법이 중요 (2)자유로운 조직의 경력 (3)일과시간의 자유와 자율	
사회문화적 요인 (14)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기업이미지, 네트워크 환경)		Marton Boddemwyn (1978) Ronstadt(1984) Scott Twomey (1988) Scherer et al.(1989) Carsrud et al.(1987) Gnyawali Fogel (1994) 정대용(1999) 장택원(2003)
	기업이미지 (5)	(1)창업을 시작하겠다는 생각 (2)친기업 이미지 (3)성공모델 기업가 (4)대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호감 (5)중소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호감	
	네트워크환경 (9)	(1)창업과 관련 조언자 (2)고민 상담자 (3)의지할 친구나 선배 (4)의지할 가족이나 친지 (5)주변에 성공적인 사업가를 안다 (6)성공 모델 사업가 (7)창업에 성공한 사람 (8)부모의 조언이나 도움 (9)부모님은 성공적 역할 모델	
자기 권 능 감 (6)	(1)내 사업을 성공 할 수 있다는 자신감 (2)내 기업을 운영하는 능력은 다른 동료보다 뛰어난. (3)어려운 일이 라도 극복 할 수 있다. (4)심신의 건강을 자신한다. (5)사업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 (6)창업을 성공 시킬 능력이 있다.		Bandura(1977) Jones(1986) Burger(1986) 이지우(2000) 윤방섭(2004)
창업 의 지 (4)	대학의 졸업을 전후로 한 창업과 업체 인수와 운영의 의지		Timmons(1994) Crant(1996) Veciana et al.(2005) 이지우(1999) 장대성(2000) 윤방섭(2004)
	(1)창업을 하겠다는 의중 (2)대학졸업 전후로 창업 (3)장래에 자신 소유 업체 설립 또는 인수 운영 (4)업체 소유 및 운영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력지향성 변수는 관리지향성, 기술지향성, 사업지향성, 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으로 분석하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기업이미지와 네트워크 환경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경력지향성, 사회문화적 요인, 자기권능감에 영향을 받는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모든 변수들에 대한 설문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으며, <표 2>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에 대한 것이다.

2.3 분석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대한 문헌을 분석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실증분석은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며,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를 구하였다.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했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경력지향성, 사회문화적 요인과 자기권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IV. 분석결과

가설검증에 앞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에 대한 신뢰성 분석에서 문항간 내적일관성을 확인하는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모두 0.65 이상으로 조사되어 두 변수에 대한 신뢰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력지향성, 사회문화적 요인과 자기권능감에 대해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았다(가설 4). 먼저 경력지향성에서 기술지향성 수준은 한국 대학생이 5.6884점으로 중국의 5.1420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안정지향성 수준은 한국 대학생이 5.7655점으로 중국 대학생의 5.1450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자율지향성은 한국이 5.5327점으로 중국의 5.0655보다 높았다. 반면에 사업지향성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4.7521점보다 중국 대학생의 5.1501점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문화적 요인 중 기업이미지 수준은 한국 대학생이 4.6955점으로 중국 대학생의 5.064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 수준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한국 대학생은 4.1621점으로 중국 대학생의

4.8172점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지가 한국 대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4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한중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비교

구 분	설문항목		평 균		t값	유의 확률
			한국대학생	중국대학생		
창업의지 결정요인	경력 지향성	관리지향성	5.6566	5.5408	1.130	0.259
		기술지향성	5.6884	5.1420	5.573	0.000
		사업지향성	4.7521	5.1501	-3.608	0.000
		안정지향성	5.7655	5.1450	5.971	0.000
		자율지향성	5.5327	5.0655	4.495	0.000
	사회 문화적 요인	기업이미지	4.6955	5.0647	-3.780	0.000
		네트워크환경	4.8124	4.9648	-1.479	0.140
	자기권능감	4.8869	4.9295	-0.438	0.662	
창업의지		4.1621	4.8172	-4.966	0.000	

<표 4> 한중 대학생 통합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창업의지	상 수	0.312		-3.179	0.002	
	경력 지향성	관리지향성	0.044	-0.023	-0.679	0.497
		기술지향성	0.040	-0.034	-1.104	0.270
		사업지향성	0.042	0.369	10.279	0.000**
		안정지향성	0.038	-0.157	-4.929	0.000**
		자율지향성	0.039	-0.027	-0.871	0.384
	사회 문화적 요인	기업이미지	0.054	0.168	4.253	0.000**
		네트워크환경	0.050	0.088	2.317	0.021*
		자기권능감	0.052	0.336	8.984	0.000**
R=0.749, R ² =0.561, 수정된R ² =0.555, F=95.425, p=0.000						

**P<0.01, *P<0.05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 비교분석

본 연구의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의 경력지향성 변수에서 사업지향성은 한국과 중국 대학생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지향성에서 한중 대학생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적으로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업지향성을 지닌 대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가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안정지향성을 지닌 대학생들은 창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기업체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분석결과와 같이 창업의지와 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표 5> 연구가설 검증결과의 요약

가설	가설내용	결 과	
		한 국	중 국
1-1	관리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기각
1-2	기술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기각
1-3	사업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1-4	안정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1-5	자율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기각
2-1	기업이미지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2-2	네트워크 환경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채택
3	자기권능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채택
4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채택	부분채택

가설 3의 자기권능감은 한국과 중국 대학생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서 기업이미지(가설 2-1)는 한중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미지가 좋으면 사회적으로 친기업 정서를 확산시켜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창업의지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

설이 기각된 반면에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환경과 경제발전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결과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는데, 기존 연구와는 달리 중국 대학생들은 한국과 여타 국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표본의 차이는 중국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중국 대학생에 비해 자본주의 문화를 유학중에 경험한 중국 유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창업의지 연구논문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에, 독립변수로 경력지향성, 사회문화적 요인, 자기권능감으로 설정하고 이들 변수가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경력지향성에서 기술지향성, 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수준은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사업지향성에서는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 중 기업이미지 수준은 한국 대학생이 중국 대학생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 수준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한국 대학생이 중국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지가 한국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경력지향성 변수 중에서 사업지향성은 한중 대학생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적 정(+)의 영향이 있었고, 안정지향성에서 한중 대학생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적으로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권능감(가설 3)은 한중 대학생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문화적 요인의 기업이미지(가설 2-1)는 한중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성이 있지만, 네트워크 환경(가설 2-2)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대한 가설이 기각된 반면에,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환경 변수가 창업의지와 관련된 것은 한국은 기각되었으나 중국은 채택이 되어 연구결과 측면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도출된 것은 몇 가지 원인으로 추측된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자가 대부분 외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는 중국 대학생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중국에서도 가정형편이 양호하여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어 향후 창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 유학생들인 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본주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중국시장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경제권이므로 이처럼 성장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업가정신도 병행해서 확대될 수 있다. 넷째, 비교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관시’를 중요시하는 사회의 영향으로 주변에서 기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창업여부나 창업관련 행동이 아니라 창업의지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창업여부와 창업행위를 연계할 때 보다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표본이 중국 대학생 표본에 비해 한정된 표본을 사용함으로써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초투고일: 2010년 11월 15일>

<수 정 일: 2010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7일>

참 고 문 헌

- 유연호(2008),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의사를 중심으로,” 호서대 박사학위논문.
- 유연호, 양동우(2008),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1(5).
- 윤방섭(2004),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 이기일(2009),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송실대 석사학위논문.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한국중소기업학회지」, 22(1).
- 임준철, 윤정구(1999), “부하에 의해 인지된 상사의 변혁적 및 거래적 리더십이 부하의 혁신성향에 미치는 영향: 자기권능감(self-efficacy)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7(1), 1-42.
- 장대성(2000), “경영 및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 12, 63-82.
- 장택원(2003), “한국의 산업별 기업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4,

217-231.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rown, T. J. and Dacin, P. A.(1997), "The company and product: Corporate Associations and Consumer Product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61, 68-84.
- Gnyawali, D. R. and Fogel, D. S.(1994), "Environments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ey dimensions and research implic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43-62.
- Krueger, N.F.(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21.
- Krueger, N. F. and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Krueger, N. F. and Carsrud, A. L.(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5(3), 315-330.
- Manning, K., Bielewicz, S., and Norbuen, D.(1989), "Development a new ventures strateg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68-76.
- Marton, K. and Boddenwyn, J. J.(1978), "Should a Corporation Keep a Low Profile?,"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18(August).
- Schein, E. H.(1975), "How career anchors hold executives to their career paths," *Personnel*, 52(3), 11-24.
- Shein, E. H.(1990), "Career Anchors: Discovering Your Real Values," *San Diego, Calif.: Pfeiffer and Company*.
- Schneider, B.(1983), "Interac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 Behavior," In L. L. Cummings and B. M. Staw,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31, Greenwich, Comm.: JAI Press.
- Scherer, R. F., Adams, J. S., Carley, S. S., and Wiebe, F. A.(1989), "Role model performance effects on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3), 53-71.

- Scott, M. G. and Twomey, D. F.(1988), "The long-term supply of entrepreneurs: Students career aspirations in relation to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4), 5-13.
- Shapero, A.(1981), "Self-renewing economics," *Economic Development Commentary*, 5(1), 19-22.
- Shapero, A.(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Kent, D. Sexton and K. Vesper, eds.,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72-90.